

정읍·부안 아열대작목으로 농가소득 높인다

밀감재배 확대 나서...제주 보다 일조량 많아 유리

레드향·천혜향 등 만감류 인기...새 소득원 육성

정읍시와 부안군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아열대작목인 밀감 재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읍시는 5일 "2015~2016년에 '아열대작목 실증시험'을 했으며 그 결과 밀감 가운데 만감류가 이 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재배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가지를 재배하

는 3개 농가를 선발해 0.8ha의 시설 하우스에 만감류를 재배한 결과 가지보다 난방비가 28% 정도 절약됐고 농가소득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 지역 만감류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최저 온도를 섭씨 1도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햇볕 쬐는 시간이 제주지역보다 350시간이나 많아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 만감(滿柑)류 나무에서 완전히 익도록 오래 두었다가 따는 밀감이란 뜻으로 '한라봉', '레드향' 등이 대표적인 품종이다.

정읍에서는 18개 농가가 5.5ha의 시설 하우스에서 한라봉·레드향·황금향·천혜향 등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2015년에 처음 출하한 레드향과 천혜향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부안군도 밀감 시험재배가 성공을 거둬 이번 겨울에 첫 수확을 했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부안군 줄포면의 한 농가에 기술을 지원하고 지난 2015년 비닐하우스에 천혜향·레드향·한라봉 등 만감류 1400주를 심어 이번 겨울에 600kg을 수확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정읍·부안은 일조량이 많은 덕분에 제주도보다 2주에서 4주 정도 빨리 출하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라며 "만감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전남 인구 190만명 위협

■ 인구 증가지역 및 천명이상 감소지역



불황에 전년보다 5082명 줄고

나주·광양·담양·구례만 늘어

2015년 반짝 증가했던 전남 인구가 1년만에 대폭 감소하면서 190만명도 위협을 받고 있다.

조선, 석유화학 등 기반산업의 침체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의한 자연감소분까지 더해지면서 감소폭이 컸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인구는 190만3914명으로 2015년보다 5082명이 줄었다. 전남 인구는 2015년 3216명이 늘어 최근 20년째 1998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인구수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도내 사업장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이 대거 타 시·도로 전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출생 1만4167명, 사망 1만6507명으

로, 인구 고령화에 의한 자연감소분도 2340명에 달했다.

산업 침체에 따른 일자리 상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이 전남 인구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인 셈이다.

시·군별로는 장흥(2844명), 여수(1180명), 영암(1092명), 해남(1073명), 강진(1005명) 등 5개 시·군에서 1000명 이상 줄었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22개 시·군 가운데 나주(6194명), 광양(1993명), 담양(220명), 구례(104명) 등 4곳뿐이었다.

나주는 증가 폭이 컸지만, 여전히 빛가람혁신도시의 위력이 남아있었다. 석유화학 산업 위주의 국가산단이 있는 여수, 조선업 위주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 그 인근 해남은 관련 산업 침체 여파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흥은 지난해 국제통학박람회 이후 종사자들이 대거 타 시·도로 전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출생 1만4167명, 사망 1만6507명으

1월의 수산물 김·송어

부안군 선정

부안군이 கட송과 철분이 풍부한 김과 DHA가 풍부해 두뇌 발달에 좋고 치매예방에 효과적인 송어를 1월의 수산물로 선정·발표했다.

김은 비타민A의 좋은 공급원이며 시력에 관여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동맥경화 및 뇌졸중 예방 등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어는 DHA가 풍부하게 함유돼 뇌를 활발하게 해줘 치매예방에 효과적이며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이노자산을 해 부종을 완화하고 노화방지를 도와준다.

1월 이달의 수산물은 부안수협(www.buanseulyup.co.kr)과 부안상설시장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부안군은 지역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한 어민들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해 지난해 매달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

완도군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

남성근로자 육양휴직 실시 등

다양한 시책 추진해 호평 받아

완도군은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가족친화우수공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완도군은 민선 6기 군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실현을 위해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실시, 남성근로자 육양휴직 실시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완도군은 특히 심사항목 중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분야와 직원의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가정이 안정되어야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심사해 인준하는 제도로, 완도군은 이번 인준기관 선정으로 내년 부터 3년 동안 가족친화기관 브랜드를 유지하게 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부안군, 35개 기관표창 수상 인센티브 20억원 확보

부안군은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지치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전북도로부터 총 35개의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임비 등 인센티브 20억 1100만원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20개 대비 70%(147%)나 증가한 것으로, 인센티브도 전년 1억 400만원에서 19억원이나 증가했다.

주요 기관표창은 2016년 대규모 통계조사 우수기관 기획재정부 장관표창을 비롯한 행정지치부 정부 3.0 평가 우수기관, 재정조기집행 최우수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 우수기관, 국민안전처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최우수기관, 전북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등이다.

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우수, 자원순환 추진실적 우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평가 우수 등 다양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부안군의 행정역량을 대외로부터 인정받는 한해가 됐다는 평가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확보한 기관표창 35개 및 상사임비 인센티브 20억원은 민선 6기 이후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롯데아울렛 군산점 신축본격화...지역 상인 반발

건축면적 줄이고 차선 넓혀

군산시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들어서서 롯데아울렛 군산점 점포 개설 등 록을 마치고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군산점 개설 등록 영업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지난달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가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해 점포 개설 등록증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 측은 이달 초부터 부지 내 터파기와 진흙출토 개설 등 건축기반공사에 들어갔다.

지역상권 위축을 우려해 기존 건축면적에서 상업면적을 줄이고 인근 도로 차선도 넓히기로 했다.

군산점은 지하 1층, 지상 7층에 판매시설, 영화관, 주차장 등을 2018년까지 갖춘다.

지역 상인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대책위는 "패션업상인들의 생계에 위협받고 중소상인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개설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상권 피해 최소화와 상권 활성화, 상인 피해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세 일 글

“안전에서 배제되는 주민 없도록 최선”

김기석 목포소방서장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소방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최근 제40대 목포소방서장으로 취임한 김기석 서장은 5일 “지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면서 “특히 섬 주민이 안전한 삶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1990년 소방

공무원으로 입문한 뒤 중앙소방학교 경리팀장, 소방방재청 상황실장, 전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또 지난 2005년에는 열약한 소방재정의 확대를 위해 ‘소방재정론’을 발간하기도 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면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절포종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절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중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먼트 현대아파트매 매 22억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수시설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수시설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인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수시설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룡리 연사무소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806㎡ 남향 위치(종용 8000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칠산반도 전망(종용 1억4500)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중은 남향(종용 2738㎡ 집 2채도 적합 2억8백)
- 장흥군 인양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투자·매도·교환

- 나주시 노인면 5388㎡ 농장·전원생활 좋은 교통중용 5억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성면 3365㎡ 아파트 등 적합 4억5천
- 담양군 금성면 국도점 7255㎡ 다용도 7억3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정용 1억천
- 대인동 상업지 580㎡ 오피스텔 사옥 생활주택 적합 13억
-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6600만원
- 광안구 고속도로에서 7분거리 1300㎡ 공장·창고적합 1억5천
- 공정적합 담양군 대덕면 집종지 8451㎡ 남향·도로중용 7억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 367㎡ 건물 신축 적합 5억2천
- 강진군 월천면 과수원과 주택 땅 21569㎡ 사할·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1265㎡ 전원생활적합 6500만원
- 담양군 무정면 공장·창고부지 6338㎡ 도로여건 좋은 3억6500
- 북구 왕월동 마을내 대지 430㎡ 시골생활도 가능 1억3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거리 대지 258㎡ 건평 364㎡ 은행 9천 사무실, 사옥, 광고제작 등 적합 3층건물임 매도 2억6천
- 동구 대지 213평 건평 920평 감정 52억 월세 3천만원선 상점비임
- 운림동 중상입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모달 중용대지 184㎡ 건물 652㎡ 은행 3억9천 교환가능 4억2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인접 매도 6억7700

주택

- 임대 월산동 통고개역에서 4분거리 1층 빌라 3실 천에 52만원
- 월산동 큰소방도로점 대지 175㎡(53평) 건평 80㎡ 1억5천
-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신축주택 대지 604㎡ 주택 99㎡ 1억35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급매”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구,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5층, 사무실 전용, 하천방향
- 38평 (실평 22평) 시세 1억, 급매 6천만원
- 76평 (실평 44평) 시세 2억, 급매 1억2천만원
- 2017년 1월 25일까지

문의 H,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